

데스크 시각

기현호



여자들은 남자들의 군대얘기를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더욱 지겨워 한다. 그 다음으로 재미없는 '자기들만의 얘기'는 주위 사람 아랑곳 않고 떠드는 골프잡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다 옛말이 됐다. 군대축구 얘기하는 남자들도 이젠 없고 골프얘기에 끌어들지 못하는 여자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는 이제 누구나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현재 국내 골프 인구는 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한해 전국 골프장 내장객은 1천780만명이며 골프장은 지난해까지 224개가 운영 중이다.

위성미 PGA 참가 비판적

올해에는 20개가문을 열었고 전설중인 골프장도 90여개에 이르고 있다. 30~40대 직장인과 주부, 50대 이상의 늦깎이 골퍼 등 골프연습장을 찾는 면면을 보면 저 변화대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다.

급속한 대중화로 명절전후 가족이나 남

녀 친인간의 골프회동도 이젠 호사가 아닌 자연스런 정례행사가 됐다. '요즘 몇이나 치는지', '드리버 거리는 얼마나 나가는지' 등 골프는 명절에 모인 친인척간 대화의 단발 소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

도전은 아름답다

렇다면 요즘 세계 골프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 키골프)의 남자대회 참가문제도 한번쯤 거론해 볼만한 이번 주석연휴 골프 화제가 아닌가 싶다.

위성미는 지난달 16일 11번째 도전한 남자대회인 PGA투어 84럼버클래식 2라운드에서 14오버파로 무너지면서 최하위로 킷오프됐다. 커튼과 성적이 1오버파였으나, 한미디로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운 성적이다.

이때도 싶었는지 남자골퍼들은 물론 미국 언론까지 일제히 위성미의 남자대회 출전을 문제삼으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

여자대회인 LPGA에나 전념하라는 등 여기저기서 쓴소리를 퍼부어 대고 있다.

PGA 정상급 선수인 스콧 버플랭크도 "먼저 LPGA 무대에서 4년정도 여자선수들을 완전 제압하고 난 후 20~21세가 되었을 때 PGA 무대를 노크해도 늦지 않다"며 점잖게 조언했지만 '이제 됐다. 그

소아마비로 왼쪽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짧은 장애인이었다. 그는 어린시절 주위의 만류와 조소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입문, 결국 '드리블의 제왕'이라는 칭송까지 들어가며 월례와 동시에 세계 축구의 양대별로 불리며 추앙을 받았다.

포기하는것이 부끄러운 것

분명한 것은 위성미는 아직 프로골퍼로서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의욕은 가득 차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 맨탈리티도 약하다. 그래서 시간은 좀더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남자선수를 격파한 '테니스 여제' 벌리진 킹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위성미의 도전은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다. '여성의 신체는 한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도 자체를 나누라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 도전은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위성미는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남자 대회에 또다시 출전한다. 주위의 시선이 굽지않을 수록 그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적 사고로 무장하고 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소녀의 끝없는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의무인 것 같다.

<체육부장> kih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온펜클럽

류동훈



지난 9월 광주에 최초로 지하철역 부두대에 자전거가 탄생했다. 웰빙도시를 위해 자전거 확대는 상식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가까운 곳은 자전거로 가지만, 먼 곳은 이동하기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전거 대여소가 생겨나고 있지만, 반납을 위해 빌려온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자전거공용제'를 제안한다.

자전거는 환경보호의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부기금, 시민후원금, 각종 광고수익 등으로 자전거기금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들은 자전거회원카드를 만들고,

자전거 공용제의 꿈!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 아파트단지,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거주인원이 일정 수 이상 되는 모든 건물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 보관대에 있는 자전거를 골라 타고 정류장에 반납, 버스타고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간다.

자전거를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열쇠를 아예 없애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우리가 공기를 마음대로 마시듯이 자전거도 마음대로 타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세워 두는 것이다. 세워둔 자전거를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탈 수 있다.

자전거는 그냥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이다. 자전거가 반드시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 질 수 있다. 나는 지금 미래의 공상영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시의 넘쳐나는 자동차를 보라. 우리조상들은 수천년 동안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해 오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20세기 인간은 자동차를 발명하여, 매연으로 오염시켜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분명히 지구는 망한다. 후손들이 망해가는 지구에서 숨도 못 쉬고 괴로움 속에 죽어 갈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지혜를 정말 심각한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 자전거공용제는 지구를 살리는 대안으로 이제 검토되어야 한다.

<광주전남기획연대 사무처장
·2006년1월수상자>

온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온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천정부지 치솟는 경유값 서민들 버겁다

7년된 1톤 트럭에 악재를 심고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데, 점심도 거른 채 일해도 기름값을 빼고 나면 몇만원 벌기가 힘들다.

왜 경유값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2년 전만 해도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데 2만원이면 족했던 기름은 이제 3만원을 내도록 하겠다. 그러나 또 오를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전남지역 경유 판매가격이 최근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올랐다는 소식도 들었다.

트럭 팔아치우고 다른 일을 해볼까 고민도 했지만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는다. 유류비를 절약하려고 경유차를 구입했는데 덤터기를 쓴 것 같다.

차값이 비싼데 경유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그나마 환경 개선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

차를 끌고 나와 물건이라도 많이 팔리지 못할 때면 한숨이 나오다.

▲안효령·목포시 창평동

부분분 인터넷 취업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면 1차 서류 전형의 경우 통과 여부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를 한다.

문제는 개별 통보 기간이 알려져 있지 않아 취업 원서를 이곳저곳에 내고 있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여간 답답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10개가 넘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단 두 곳만이 서류 전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했을 뿐이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끝났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지원자들의 속은 바빠바빠 타들어간다. 이 기간 중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엄

두도 못 내고 그자 개별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결과가 마감됐느냐는 질문을 인터넷에 남기기도 했다.

서류를 제출한 뒤 하루종일 휴대전화를 쥐고 연락을 기다리는 심정을 뻔히 알지 않는가. 오죽했으면 회장실 갈 때도 휴대전화를 끊겨 갈 정도다.

채용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결과가 개별 통보됐습니다'라는 공지 한 줄이라도 올려줬으면 한다.

▲박준용·목포시 육암동

시설

정치권 '한가위 민심' 제대로 헤아려라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고향을 찾는 그 긴 행렬의 끝에는 '민심'이라는 전국단위의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민심의 향배는 주석연휴 직후 실시될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통해 표면화되면서 향후 펼쳐질 정치지향의 밀거름이 될 것이다.

지금 민심의 최대 화두는 먹고 사는 문제다. 통계청의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가 7개월 연속 주락하는 등 경기 전망이 밝지 않고 양극화 속에서 체감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주석연휴 동안 밀바다 민심을 제대로 살피기 바란다. 단순히 '주석식탁'을 겨냥한 의정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무엇이 서민들의 희망과 의욕을 잃게 하고 있는지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정계개편이나 보수니 진보니하는 한가한 소리는 민심을 헤아린 뒤의 문제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한가위 민심을 '쉬' 쪽에 경읽기' 하듯 헤아리는 안 된다.

명절때만 되면 '민심이 어떠니'하면서 떠들썩하다가 며칠도 안돼 민심은 이양지 않고 소모적 논쟁으로 벌어지게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야 할 것이다.

발길이 뚝 끊긴 사회복지시설의 뒤편에 주석연휴 기간 해외 비행기편이 동

나고 유수 특급호텔이 만원사례를 이루

기대되는 한국인 첫 유엔사무총장 탄생

번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한다. 반장관은 3일 실시된 유엔사무총장 선출 4차 예비투표에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 14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아직 유엔 안보리의 추천 투표와 총회의 인준 등 일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인 최초의 유엔사무총장 탄생은 한국 외교에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반장관 개인의 영예이기

도 하지만 국가적 경사다.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국가 신인도에도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 블립니다.

유엔사무총장이 어떤 자리인가. 유엔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세계 192개 회원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야 하는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다.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지명도에선 미국 대통령에 버금가고, 도덕적 권위에선

교황의 권위에 종종 비유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 배출은 반장관 개인의 능력을 넘어 한국 외교의 승리라 할 수 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한 표도 없었다는 것은 미국 등 강대국 외교 및 다변화 외교에서 성과를 거뒀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국 외교의 폭과 깊이가 더 넓고 더 깊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리더로 등장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반장관의 사무총장 피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며 일부에서는 '내정됐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미국과 일본 등도 투표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지일색이다.

차기 유엔사무총장은 오는 9일 안보리 추천 투표에서 사실상 확정된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총력 외교전을 벌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 첫 유엔사무총장 탄생을 기대한다.

無等鼓

유기증권·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 수는 약 1천660여개. 그런데 신규상장이나 편법을 동원한 '퇴출 피하기'와 우회상장 등으로 인해 상장 회사수는 종합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가는 추세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코스닥시장에 자본잠식과 관련 강화된 퇴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장사의 자기

자본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상태로 2반기 연속될 경우 퇴출시키는 요건이 신설된다.

자본잠식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자본의 절대 규모만으로도 퇴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종전처럼 감자를 통해 퇴출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

또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하던 자본잠식 퇴출요건 주기도 반기 단위로 단축된다. 따라서 종전과 달리 사업연도를 뿐만 아니라 반기말에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를 1반기 동안 지속하면 곧바로 퇴출된다.

모두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조치다. 과연 그 근본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인내	사 회 2 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0195〉	〈F A X 220-521〉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조사부	2200-628	〈F A X 227-9500〉</	